2022년 9월 4일 (녹) 연중 제23주일 (순교자 성월) No. 1329

103위 순교성인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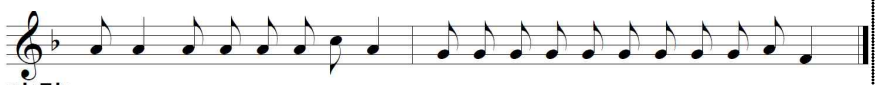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 www.stfranciskc.org
청년 website : facebook.com/groups/yagfyny

주임신부 : Fr. Thomas Gallagher, O.F.M.
지도신부 : Fr. 김진열 가롤로(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지도수녀 : 박순호 티모테아(툿찡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이서원 마리로사 201.744.9189
한국학교 : stfrancisks@gmail.com

[제1 독서] ····· 지혜 9,13-18

[화답송] ····· 시편 90(89),3-4.5-6.12-13.14와 (◎ 1)



(후렴) 주 님, 당 신 은 대 대 로 저 희 안 식 처 가 되 셨 나 이 다.

○ 인간을 먼지로 돌아가게 하시며 당신은 말씀하시나이다. "사람들아, 돌아가라." 천 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한 초막 밤과도 같사옵니다. ◎

○ 당신이 그들을 쓸어 내시니, 그들은 아침에 든 선잠 같고, 사라져 가는 풀과 같사옵니다. 아침에 돋아나 푸르렀다가, 저녁에 시들어 말라 버리나이다. ◎

[제2 독서] ····· 필레 9ㄴ-10.12-17

[복음 환호송] ····· 시편 119(118),135

◎ 알렐루야

○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빛나게 하시고 당신 법령을 저에게 가르쳐 주소서. ◎

[복 음] ····· 루카 14, 25-33

[성가안내]

- 입당성가 [337] 미사 시작
- 봉헌성가 [215] 영원하신 성부
- 성체성가 [498] 예수여 기리리다
- 파견성가 [23] 온세상 다스리심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밑줄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 숙인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흗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 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미 사 봉 헌

연미사	봉헌
이 종환 토마스 아퀴나스	허 미자 실비아
박 현진 스테파노	진 홍섭 오도
박 현진 스테파노	손 명희 엘리사벳
박 현진 스테파노	이 성수 미카엘
이 창희 필립보	이 상돈 토마스, 김 연주 레아
이 창희 필립보	손명희 엘리사벳
손 중만, 송희영	이 종애 안젤라
이 삼영 요셉, 이 필영 마리안나	이 영근 마이클
김 세문 다미엘, 전 순복 젬마	김 인숙 로사
지 경임 마리아	이 미숙 안나
김 영호 요셉	김 미혜 이레나

생미사	봉헌
김 진열 가롤로 신부, 박 티모테아 수녀	박 기목 알버트, 박 민재 아녜스
사랑의 공동체 교우분들	박 기목 알버트, 박 민재 아녜스
연령회, 레지오, 성가대	박 기목 알버트, 박 민재 아녜스
고통받는이들을 위하여	박 기목 알버트, 박 민재 아녜스
윤 복홍 요한 (칠순 축하)	박 기목 알버트, 박 민재 아녜스
강 호영 대건 안드레아 (칠순 축하)	박 기목 알버트, 박 민재 아녜스
박 기목 알버트, 박 민재 아그네스	이 상돈 토마스, 김 연주 레아
이 정주 소화 데레사	주 현경 바울라
황 태준 니콜라스 (생일 축하)	손 명희 엘리사벳
김 지현 스콜라스티카, 김승환 베네딕도	부모
박 연희 (생일 축하)	박 순 로사
박 정선 안젤라	박 아영 올리바
김 영희 클라라	이 경자 율리안나
신 호균 안토니오 (취업을 위해)	신 해리 레아
장 성기 리차드 (생일 축하)	조 성자 데레사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기도	성찬봉사	복사 1	복사 2
9월4일	장혜윤 크리스티나	정은철 프란치스코	이경자 율리안나	이경자 율리안나	김종선 비비안나	한서희 데레사	이성하 시몬
9월11일	이영노 율리안나	민완준 필립보	김애희 테클라	김애희 테클라			

● 축일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기도해요.

9.1 드보라 9.2 라헬 9.3 그레고리오 9.4 모세 9.7 레지나
9.8 성모님마리아 9.13 요한 크리소스토모 9.16 고르넬리오
9.20 한국 성인 9.21 마태오 9.23 테클라, 오상의 비오
9.26 고스마, 다미아노 9.27 빈첸시오 9.28 리오바
9.29 가브리엘, 미카엘, 라파엘 9.30 예로니모

● 한가위(추석) 합동 위령미사와 버스 신청받습니다.

- 일 시: 9월 11일 (일) 오전 11시
- 장 소: 뉴튼 성 베네딕도 수도원
- 마 감: 9월 4일

● '하늘처럼' 성가대 단원 모집합니다.

'노래로 하는 하느님 찬양은 두배의 기도'라는 어거스틴 성인의 말씀대로 함께 하실 분들을 기다립니다.

- 문 의: 노 데레사 917-692-6447

● '하늘처럼' 성가대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 자 격: 피아노 전공하신 분
- 문 의: 이 카타리나 646-696-4680

● 컴퓨터 배워요. 포담대학에서 주관, 무료교육!

- 접수일시: 9월 7일(수), 9월 14일(수) 오전9시 – 오후12시
- 문 의: Jesus Loza 631-796-0735, adultesl@fordham.edu
- 장 소: 성 프란치스코 성당
- 개 강: 9월 21일 (수)
- 초급반: 수요일 오전 9:30-11:00
- 중급반: 수요일 오전 11:30 – 오후 1:00

** 효율적인 수업을 위해 한 반에 학생 10명만 받습니다**

● 2023 달력 광고 접수 받습니다.

- 대 상 : 개인이나 기업의 광고를 본당 달력에 싣고 싶으신분들
- 마 감 : 9월 4일
- 광고비 : $100

● 예비자 교리반 수강 신청 받습니다.

- 대 상 : 가톨릭교회에서 세례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 관심 있으신분들
- 문 의 : 2층 사무실
- 세례예정 : 2023년 예수 부활 대축일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공지사항 기부 주보

[순교자 성월 기도]

◈ 한국 순교자들에게 바치는 기도

○ 이 땅의 모든 순교자들이시여, 당신들은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어 굳은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나이다.

● 저희는 현세에서 악의 세력과 치열하게 싸우며 당신들이 거두신 승리의 영광을 노래하고 모든 선의 근원이신 하느님을 찬양하오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위대하신 순교자들이여,
천상의 모후이신 성모 마리아와 함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하느님의 자비를 얻어주소서.

● 지금도 어둠의 세력이 교회를 박해하고 있사오니 하느님께서 전능하신 팔로 교회를 붙들어 보호하시며 아진 어둠 속에 있는 지역에까지 널리 펴시도록 빌어주소서.

○ 용감하신 순교자들이여, 특별히 청하오니
우리나라를 위하여 하느님게 빌어주소서.

● 당신들은 이땅에서 많은 고난을 겪으며 사시다가
목숨까지 바치셨사오니,

○ 전능하신 하느님께 빌어주시어 교회를 이 땅에서
날로 자라게 하시며 사제를 많이 나게 하시고

● 우리 신자들이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냉담자들은 다시 열심해지며, 갈린 형제들은 같은 믿음으로 하나 되고 비신자들은 참신앙으로 하느님을 알아 천지의 창조주, 인류의 구세주를 찾아오게 하소서.

○ 참으로 영광스러운 순교자들이여,
저희도 그 영광을 생각하며 기뻐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하느님 아버지께 빌어주시어 저희와 친척과 은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얻어주소서.

● 또한 저희가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한결같이 믿어 증언하며 비록 피는 흘리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은총을 입어 선조하게 하소서.

○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이여,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2022년 9월 교황님의 기도 지향]

'사형제도 폐지'

인간의 불가침성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사형 제도의 법적 폐지가 모든 나라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합시다.

Nest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krishap@nestseekers.com
(917)370-0394

ISC NEW YORK
International Student Consulting
졸업/OPT 후 진로고민 및
진학/취업/자기소개서/면접준비 무료상담
iscnewyorkmetro@gmail.com
1-917-386-7405

이민전문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NEW WONJO 원조
23 W 32ND STREET, NEW YORK
212-695-5815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WEST 58 WINE & LIQUOR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1AM-11PM/ SUN: 12PM-9PM

더큰집
32 W 32ND STREET NEW YORK
TEL. 212-564-8238

마리아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212-594-7773
646-808-7322

뉴욕 맨하탄 NYC INTEGRATIVE ACUPUNCTURE
마음힐리언스 한방병원
212-203-0072
Kakaotalk ID: nycacu

광고주를 찾습니다

광고주를 찾습니다

[기도해주세요]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마태 25,45)

♡ 투병중에 계신 분

김순한 (루시아)	김옥지 (아가다)
이정주 (소화데레사)	김동희 (헬레나)
정창동 (폴리나)	지군자 (스테파니)
진정은 (마리아)	이진자 (세실리아)
고종호 (마태오)	이병국 (요한)
이경봉 (요셉 그레고리오)	박명순 (모니카)
이경희 (미카엘라)	

오늘의 묵상

(루카 14, 25-33)

루카가 전해주는 오늘 복음은 '버림과 따름'이야기입니다. 가족마저 버리고 온 존재가 하느님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세상에서 하느님을 향하여 가는 길은 오직 하나 십자가의 길뿐이라고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의 의미는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의 서열을 재정립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이 쉽지 않아서 주저하고 휘청거리는 나약한 신앙을 지적하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탑을 세우거나 전쟁을 치르는 세상사에 대처해서 곰곰이 따져보아 목적을 이루듯이, 하느님의 뜻에 온 몸과 마음으로 몰입하는 현명한 선택을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의 제1독서 지혜서는 '지혜를 처하는 기도' 이야기입니다. 썩어 없어질 육신에 갇힌 인간은 그 생각이 보잘것없고 속마음이 변덕스러워서 스스로 구원될 수 없음을 깨닫고 지혜의 영을 청했습니다. "당신께서 지혜를 주지 않으시고 그 높은 곳에서 당신의 거룩한 영을 보내지 않으시면 누가 당신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제2독서 필레몬서는 '오네시모스에 대한 부탁'입니다. 바오로는 복음의 가르침대로 십자가가 의미하는 새로운 가치 질서를 받아들이라고 필레몬을 설득했습니다. 종이었던 오네시모스를 그의 본 주인 필레몬에게 보내면서 바오로는 말했습니다. "이제 그대는 그를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하는 형제로 (오네시모스를)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나에게 특별히 사랑받는 형제라면, 그대에게는 인간적으로 보나 주님 안에서 보나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여긴다면, 나를 맞아들이듯이 그를 맞아들여 주십시오." 자기를 떠나버렸던 종을 자기 형제로 새롭게 받아들이라는 바오로의 권고 말씀은 세상의 가치기준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겠지만, 그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필레몬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현세에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던 좋은 본보기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는 지혜의 길입니다. 십자가는 하느님의 뜻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시금석입니다. 성령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힘과 용기를 주시고, 절망하지 않는 희망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 한 상만 토마스 신부 -

순교자 성월

한국 천주교회는 해마다 9월을 '순교자 성월'로 지내면서, 이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삶을 본받도록 이끌고 있다.

'순교'란 신앙을 지키고자 목숨을 바치는 행위이다. 군교자들은 하느님과 하늘나라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지키고자 목숨까지 내놓는 순교를 받아들였다. 9월 순교자 성월은 특별히 우리나라 순교 성인 10위를 비록하여 순교 복자 124위등 수많은 순교자들의 굳센 믿음을 본받고자 다짐하는 때이다.

한국 교회의 순교자 성월은 1925년 로마에서 거행된 '조선 순교자 79위 시복식'이 계기가 되었다. 한국 교회는 이듬해부터 9월 26일을 '한국 치명 복자 79위 첨례(축일)'로 지냈는데, 이날이 기해박해 (1839년)와 병오박해 (1846년) 때 순교하신 79위 복자 가운데 가장 많은이들이 순교한 날이기 때문이다. 1968년에는 병인박해 (1866년) 순교자 24위가 시복되었다. 1984년 5월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방한하여 이들 103위 복자를 시성하였다. 또한 2014년 8월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리나라를 찾아, 순교자들 가운데 순교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고 지역에서 현양되던 124위를 시복하였다.

한국 교회가 공식적으로 '복자 성월'을 선포하지는 않았으나, 1925년 79위 시복 이후로 복자들을 현양하고 공경하는 신심이 확산되면서 자연스럽게 9월 한 달을 복자 성월로 지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1984년의 103위 시성에 맞추어 복자 성월을 '순교자 성월'로 바꾸고, 9월 20일을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로 경축하고 있다.

순교자들은 평소 하느님을 체험하며 살았기에 기꺼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다. 오늘날은 피를 흘리며 신앙을 증언하는 시대는 아니지만, 일상생활의 크고 작은 어려움을 이겨 내고자 노력함으로써 선조들의 순교 영성을 본 받받을 수 있을 것이다.